

5년간 855조 투자 폭탄… AI·로봇·그린 산업 대변혁 예고

세계 어디에 얼마 투자하나

삼성·SK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대차그룹 모빌리티·로봇 등 육성
LG 소재·부품 등 기술 경쟁력 제고

한화 협력사 성장·일자리 창출 집중
HD현대 에너지·조선·로보틱스 확대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 국내투자 강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에 맞춰 16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예고에 없던 깜짝 발표다.

현대차·SK·LG·한화 등이 발표한 액수만 약 855조원에 달한다. 이는 3년, 5년 단위의 총투자액을 합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728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관계 협이가 종료되면서 국내 사업 전략에도 속도를 높여겠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은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합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국내 투자 전략을 공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백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짓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투자와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자 이 회장은 “국내 산업 투자 축소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벤처기업과의 상생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지난 9월에 약속한 대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며 “R&D(연구·개발)도 포함해서 국내 시



최태원 SK그룹 회장

설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8년까지 128조원의 투자를 계획했지만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와 공정 첨단화 등으로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만으로도 600조 원 가량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 AI와 서남권에 AI데이터센터를 각각 진행 중”이라며 “다른 기업들과 논의를 통해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향후 5년간 125조원, 연평균 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중장기 국내 투자 결정은 그룹의 근원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원이며,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AI·로봇 산업 육성



정희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희선 회장은 발표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투자금액은 직전 5년(2021~2025년) 동안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000억원을 36조 1000억원가량 넘는 규모다. 125조 2000억원을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 400억원으로, 직전 5년 연평균 투자액 17조 8000억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액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구 회장은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오션



구광모 LG그룹 회장

은 대미 투자 이외에도 국내에 향후 5년간 약 11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은 “국내 투자를 통해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원에서 2040년 21조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인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향후 5년간 약 15조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 정희선 회장은 “현대 에너지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HD 현대로보틱스, HD 현대건설 기계 등 AI 시대 기계 로봇 사업에서 절반 이상인 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조선해양분야에서도 7조원을 투입해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생산 자동화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은 3년간 4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미투자 年200억달러… 관세 피하지만, 국내 지방경제는 ‘흔들’

국내 설비투자 위축 우려 커져
GDP 등 성장둔화 우려 확대
지방공장 줄면 지역경제 타격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29조 원) 한도로 합의됐으나 국내 일자리 위축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기업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이 본격화할 시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의 고용시장 및 경제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

생산기지의 이탈은 대형공장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

온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간 기업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 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GDP의 4%, 전(全) 산업 설비투자의 42%에 달했다.

특히 최근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GDP 증가세를 뒷받침했지만 향후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달 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18조 원 규모의 국내투자용 자금이 해외투자로 바뀔 경우 한국 GDP가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기준으로 명목 GDP(2556조 9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가 국내투자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105조 5000억 원 상당의 GDP를 갉아먹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보고서가 ‘18조 원’을 예로 든 반면, 연간 대미투자 상한은 ‘29조 원’이다.

게다가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지 않고 국내 지방도시 등지에 잔류하는 기업 등은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

액은 연간 4천9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 자동차(1374억 원), 일반기계(1200억 원), 항공(820억 원) 등에서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이라 추산한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는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충남지역 경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의 관세정책으로 이 지역 제조업 성장률이 0.5~1.5%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0.2~0.7%p 하락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반도체·전장·조선까지… 해외 기업, ‘K-기술 동맹’ 강화

글로벌 CEO 방한, 미래협력 확대
반도체 전장 AI 분야 기술협업 강화
美 해군총장 조선방산 협의 본격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미래 혁신 제조기업과 핵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축인 반도체와 전장(차량용 부품)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삼성, LG,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및 핵심 계열사 수장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동차, 전장 등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협력을 통해 미래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올라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졌다. 이들은 삼성과 벤츠의 차량용 부품 공급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

은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SDI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게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세계 최대 노광장비 업체 ASML의 크리스토퍼 푸케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과 SK하이닉스 관노정 사장을 만나 반도체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말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

O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했다. 당시 황 CEO는 이재용 회장,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차맥 회동’을 진행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광주에서 따로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을 계기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들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해 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SK그룹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인포테인먼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으로 완성차 트렌드가 이동하며 AI 칩의 중요도가 커졌다.

또 대일 커널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 조선업체를 만나 마스가(MASG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를 1500억달러(215조원)로 전망하고 있다.

대일 커널 미군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아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양성운 기자 ysw@